국어 3분 스피치-봉사활동의무 찬성 2213 박성호

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,봉사 정신 함양,나눔의 즐거움,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봉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.그러나 이런 봉사활동이 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입됨으로써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.

 우선, 학생 봉사 의무화 제도는 미래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한 인격수양,나눌 줄 아는 봉사정신 함양,지역사회 발전에 기여,그리고 성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학생의 비교과적 요소에 대한 척도 제공과 같은 설립 취지를 가지고 있다.반대측에서는 억지로 하는 봉사는 학생의 인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학업에 방해,오히려 봉사기간에도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모두가 의무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 중 누가 진심으로 참여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.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이고 부분을 전체로 보는 생각이다

 먼저 시켜서 하는 봉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.전국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이들 중 봉사의 의미를 알고 즐기는 학생도 있지만 싫어하거나 굳이 봉사를 해야 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다.개인의 자율로 맡겼다면 평생 쳐다보지도 않았을 봉사활동을 시켜서 하는 활동이라도 그걸 통해-모두 그러진 못하겠지만-봉사의 참된 의미를 점차 깨달아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.봉사활동이 해당기관에 피해가 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인데 ,하나는 일이 서툴러 실수를 하거나 보통 때 보다 적업이 늦춰지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지속성이 없어 학생들이 올 때 마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.이것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지속적 활동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.마지막으로 학업에 관련하여,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은 모두가 같은 시간을 할당 받으므로 다를 게 없으며,또한 비록 강압적으로 봉사를 했더라도 그 말은 사회에서 적어도 의무화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